

대부도파크골프클럽 회칙 논란, 리더십 부재가 부른 혼란

회칙 무시와 비상대책위...
혼란의 중심에 선 회장

대부도파크골프클럽이 회칙 운영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심각한 조직 운영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회칙은 미비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가 조직 운영의 최소한의 기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회장은 회칙을 반복적으로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회원들은 이를 “업무방해에 준하는 행위”로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총회를 예고했다가, 이후 아무 설명 없이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은 조직 내 혼란을 더욱 키웠다.

회칙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비상대책위 설치의 절차와 정당성 모두에서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격 없는 인사의 임원회의
참석... 회의 효력 논란

논란은 임원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현 회칙에 따르면 임원회의 참가 자격은 회장, 부회장, 4개 클럽장, 사무국장, 재무,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임원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회의 효력에 큰 의문을 남겼다. 감사는 정당한 임원임에도 소집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사실이라면 해당 임원회의는 절차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의 참석과 정당한 임원의 배제는 결정사항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으며, 강행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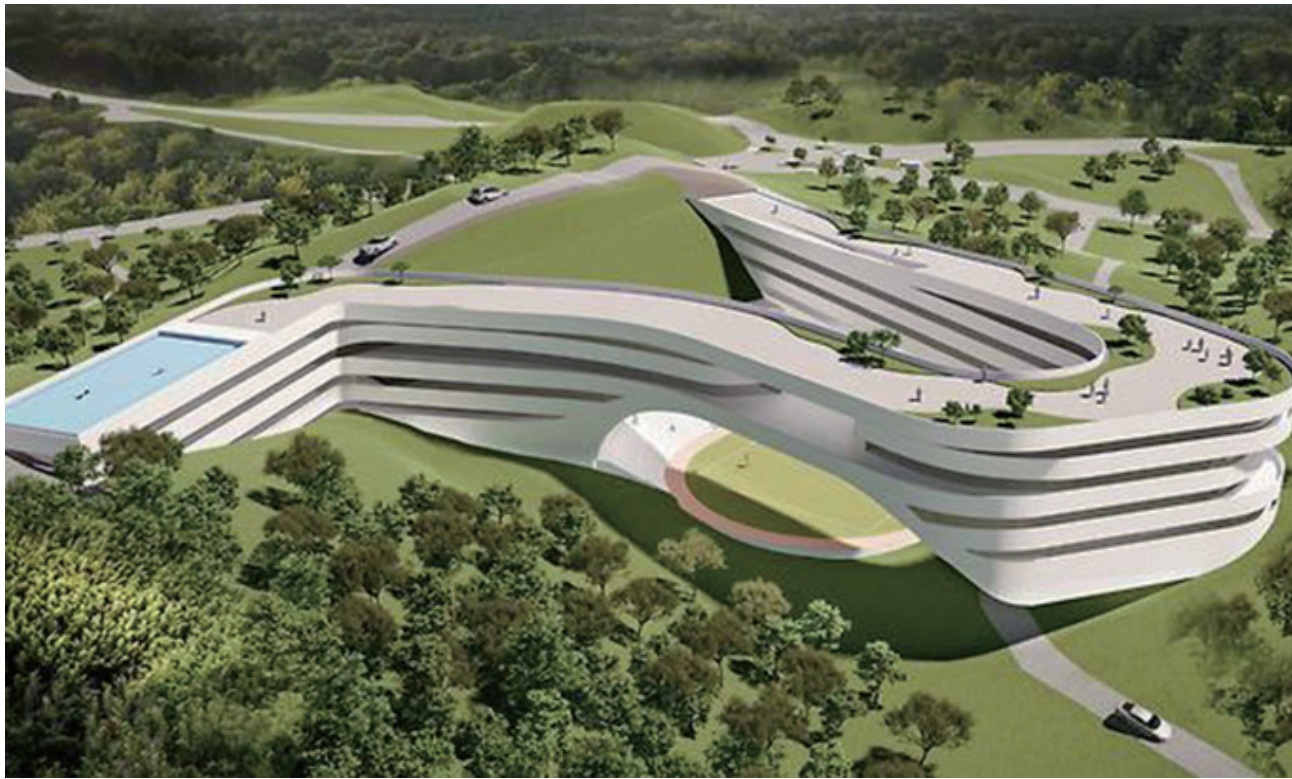
회칙 개정 시급... 상급기관도
‘특단 조치’ 검토

가장 큰 문제는 현 회칙이 지나치게

부실해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클럽장 선출 방식, 회원 클럽 가입 절차, 선거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미 여러 차례 해석 충돌이 발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회칙이 존재하는 한 무시는 제명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회장이 총무와 재무에게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리더십 부재 속에서 조직 운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상급기관인 안산시파크골프협회도 개입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부파크골프클럽은 더 이상 회칙 논란을 방치할 수 없는 국면을 맞고 있다. 회원들은 차기 총회를 통해 회칙을 전면 정비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가칭)경기안산1교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강점을 함께 살리는 ‘글로벌 인재 양성 학교’로의 도약을 목표로 2028년 9월 개교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가칭)경기안산1교의 조감도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가칭)경기안산1교, 국제학교급 교육과정 개발 박차

2028년 9월 개교가 목표
내년 3월 교명선정위 구성

(가칭)경기안산1교가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강점을 함께 살리는 ‘글로벌 인재 양성 학교’로의 도약을 목표로 2028년 9월 개교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를 국제학교급 수준으로 설계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현재 핵심 단계인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학생 비율과 선발 방식 등도 국제적 기준과 지역 특성을 모두 고려해 총본

한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은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본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에는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교명을 확정하고,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한 일상 감사도 실시하게 된다.

학교 설립 공사 발주는 내년 7월에서 8월 사이로 예상되며, 실제 공사는 내년 말 본격 착공될 전망이다. 이후 2028년 학교 준공을 마치고 개

교 준비 절차에 돌입해 2028년 9월 첫 입학생을 맞이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국제학교급 교육환경을 갖춘 새로운 모델학교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대부도에 제대로 된 학교가 들어서도록 도교육청과 꾸준히 협의하고 기간내에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2조 3,299억 원 규모 내년 예산안 제출... 민생·성장에 집중

“채무 제로 지속... 안정적
예산 운용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 운영”

안산시가 2조 3,299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 2조 2,598억 원 대비 70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 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9억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7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증가했다.

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

와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 및 성장 기반 분야와 민생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정 5대 핵심 목표인 ▲시민중심도시 ▲첨단혁신도시 ▲복지문화도시 ▲미래교육도시 ▲교통환경도시 조성을 중점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만근 시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과의 현장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전과 관련해 총 249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156억 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57억 원) ▲청년 월세 지원(50억 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억 원) ▲청년 이사비 지원(4천만 원) 등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첨단혁신도시 조성과 기업의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3억 원)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10억 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5천만 원) 등을 지원한다.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개선을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10억 원)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지원(4억 2천만 원) ▲미래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해 안산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역동하는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복지분야에서는 일반회계의 51.35%를 차지하는 1조 5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319억 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1,222억 원) ▲장애인 연금(15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신규 지원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강화한다.

미래 교육도시 분야에서는 교육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진로진학 상담센터운영(2억 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3억 2천만 원) 지원 등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300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구 봉 도 앞 바다 뷰 명 품 식 당



- ◆탁 트인 바다뷰 ◆시원한 술발정원
- ◆운치있는 야외테라스 ◆반려동물 놀이터
- ◆최근 주방시설 및 인테리어 완비

- * 70평 1층 식당 * 보증금 3,000만원 / 월 250만원
- * 시설비 2,000만원 * 전전세 잔여기간 39개월

김선중 공인중개사 ☎ 010-3199-4992

강문옥 총재, 안산제일로타리클럽 공식 방문 “새로운 도약 3750! 함께 성장하자”

배상모 회장,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과 국제 교류사업
추진 계획 강 총재에게 보고

국제로타리 3750지구 강문옥 총재가 11월 13일 안산제일로타리클럽(회장 문곡 배상모)을 공식 방문해 클럽 주회를 함께하며 2025-26년도 지구 운영 방향과 로타리의 핵심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문옥 총재는 올해 지구 슬로건 “새로운 도약 3750! 점프 점프 점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지구의 발전은 각 클럽의 활발한 참여와 협력에서 비롯된다”며 “공공이 미지 강화, 회원 증강, 봉사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통해 지구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은 배상모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관리 및 클럽 활성화 ▲참여도 확대 ▲지역사회 봉사 강화 ▲회원증강 및 기부 활성화 등 2025-26년도 4대 핵심 목표를 제



국제로타리 3750지구 강문옥 총재가 11월 13일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을 공식 방문해 클럽 주회를 함께하며 2025-26년도 지구 운영 방향과 로타리의 핵심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하고,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과 국제 교류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강 총재는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모범적인 봉사를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클럽”이

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3750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리더 역할을 해 달라”고 격려했다.

총재의 따뜻한 조언과 회원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이날 공식 방문주회는

화합과 소통의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으며, 안산제일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에 더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봉사 중심의 클럽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안산시는 지난 13일 상록구 행복나눔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는 지난 13일 상록구 행복나눔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남북 주민 간 화합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회장 배윤길) ▲(사)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회장 주예림) ▲(사)소망탈북민연합회(회장 심유진)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와 북한이탈주민 100여 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5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김장 작업을 시작해 약 350상자(5kg 기준, 1천만 원 상당)의 김치를 담갔다. 이민근 안산시장 역시 이날 행

사에 참여해 김장을 함께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완성된 김치는 관내 북한이탈주민 35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오늘의 김장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버무리고 이해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2회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북한이탈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생활지원, 문화교류, 정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제7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개최... 따뜻한 나눔 실천



안산시는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 주관으로 '제7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는 지난 13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안산시지부(회장 이동근) 주관으로 '제7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지부 회원과 후원자, 장애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북돋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2017년부터 장애인 청소년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근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19명의 장애인 청소년이 새로운 후원자와 인연을 맺었다”며 “나눔과 기부의 문화를 실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학생들이 이 따뜻한 사랑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시장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 덕분에 안산시는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산시는 장애인 장애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 수 있도록 적극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시민시장 부지매각 본격화 상생 기반 퇴거 지원책 마련

수십 년 표류 끝 적극 행정과
상생으로 마침표 찍어

안산시가 수십 년간 표류했던 안산시민시장 부지 매각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수개월간 이어진 협의 끝에 점포 반환 절차에 착수했으며, 상인들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한 퇴거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추진한다.

안산시는 11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브리핑에서 안산시민시장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지난달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최종 의결된 '제4차 도시개발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산시민시장 부지매각 처분 의결과 관련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이어졌다.

안산시민시장 부지는 내년 봄(2월경) 공개경쟁입찰(최고가)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며, 낙찰자는 준주거지역 용도에 맞게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시설 등을 조성해 초지역세권 도심부에 걸맞은 도심 공간으로 재편하게 된다.

안산시민시장은 1997년 12월 원곡동 라성호텔 일대 노점상 정비를 위해 초지동 시유지에 조성된 공설

시장이다. 상인들은 2년마다 사용허가 갱신을 통해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점포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영 이후 30여 년이 도래하면서 ▲다다수 상인의 고령화 ▲온라인으로 개편된 소비변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주변 환경 급변 등으로 이용객이 줄어들어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주변 노후 연립단지가 신축 아파트로 재개발되면서 주민의 시장 폐쇄 요청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7년간 시설현대화 용역과 사업비 확보를 추진했으나, 점포 배치와 형태 등에 대한 상인간의 합의가 지연되며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22년 진행된 '부지 활용방안 구상 용역'을 마지막으로 시대 변화에 걸맞은 공유재산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퇴거 협의 과정에서 상인 189명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400여 일간 집회와 소송 등을 이어갔다. 이에 시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점포 운영을 종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전통시장·상인회 등록 취소 ▲점포 반환 요구 절차를 진행했다.

정희재 기자

市,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환영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13일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컨벤션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안산시 선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환영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위원장, 대회에 출전한 안산시 장애인체육회 선

수단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메달 봉납식과 포상금 전달식 등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안산시 선수단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6일간 부산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의 종합 우

승 5연패에 기여했다.

경기도가 금메달 175개, 은메달 137개, 동메달 132개를 획득한 가운데, 안산시 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5개 등 총 29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수영과 보치아 종목에서는 17개의 메달을 합작해내

며 종합우승에 기여했다.

이민근 시장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최고의 성적을 가져다준 안산시 선수단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 및 선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김현 국회의원, AI시대 여성위원회 맞춤 교육

지방자치데이터센터 최정목 소장 초청 특강
김현 의원, APEC 성과 공유·안산 비전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은 인공지능(AI)과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주제로 여성위원회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의 하나로 지난 7일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안산시를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김현 국회의원과의 지방자치데이터센터 최정목 소장이 1, 2부로 나누어 특강을 했다.

교육에는 안산시를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안산지역 여성 당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최정목 소장은 1부 'AI로 도약하는 안산, 모두의 AI시대 여성의 일상과 활동'이라는 발표를 통해 AI시대 예상되는 여성의 삶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냈다.

또 AI시대 여성 주권자의 가치와 덕목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최 소장은 "AI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현명한 주권자라면 AI 등 기술혁신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돼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혁신 생태계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타적이고 유능한 AI정부는 주권자의 의식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사로 나선 김현 의원은 지난달 말 열린 경주APEC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둔 성과를 공유하며 AI시대 안산의 비전을 그려냈다.

김현 국회의원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엔비디아로부터 GPU(그래픽 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해 AI 3강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코스피 지수가 4200을 돌파하는 등 역대 가장 효능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한복 외교도 전임 대통령 부인과 차원이 다른 품격을 보여줬다"면서 "그야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은 인공지능(AI)과 경주APEC 정상회의 성과를 주제로 여성위원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로 대한민국의 K-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공고히 한 회담이었다"고 자랑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국' 비전에 맞춰 안산지역에서 실현할 AI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폐교한 경주초등학교에 시청자미디어센터와 AI 전문 과학관 등을 구축하고 디지털배움터 등을 확대, AI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산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구

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여 걸친 특강 이후에는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기념, 김현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를 대신해 차광현 당원들에게 당대표 1급 표창을 전달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당원주권시대 깨어있는 당원들의 활동이 오늘의 민주당과 안산시를 지역위원회를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 전국에서 당원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하는 지역위원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은미 도의원 “남양주소방서 화재 안전조사 실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물·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22곳 중 6곳, 6월에는 94곳 중 4곳만 결과가 공개됐으며, 7월과 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결과가 유기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도민에게 하는 약속과 같기에 조사 가능 대상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남양주소방서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장윤정 도의원 “AI 활용 유아평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인공지능(AI)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학부모 동의 절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인공지능(AI)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학부모 동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

“교사 연수만으로는 한계
AI 오남용·유출 대비한 책임
체계와 검증 절차 마련해야”

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도입은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보호장치·유출 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아의 놀이 장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도 실제 유아의 반구성 정보,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는데, AI에 저장된 아이들

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뒤 완전히 삭제되는지조차 교육청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윤리를 교육했다”고 설명했지만, 장윤정 의원 “연수만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딥페이크 사례처럼 기술은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도입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학부모에게 AI로 아이의 영상·사진을 분석해도 되는지 묻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조치”라며,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기준 마련 및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태희 의원, 道 공직자의 ‘지방의원 불법 녹음 지시’ 강력 규탄

道 공직자, 산하기관 시켜
지방의원 ‘불법 녹음’ 지시한
실체 드러나, 사과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목)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지방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과 휴대전화 통화녹음을 지시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는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 10월 도의회에 심사결정된 2025년도 출자계획 동의안과 ‘기후펀드(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추진 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집행부가 밝힌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의회에서는 해당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에 김태희 도의원은 사업방식의 변경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류된 출자계획 동의안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9월 24일 동료의원과 함께 관련 민간대표와 산하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9월 30일 도 집행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창 기자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기후위기 시대 철도 안전 무방비 문제”

도민 생명 위협하는 ‘부품
같이식 행정’ 중단하라”



로 철도 안전 문제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1년 이후 도내 6개 도시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총 188건의 안전사고 중 100건 이상이 ‘이용자 부주의’로 분류됐다”며, “이는 단순히 ‘이용자 문제’가 아니라 안전시설과 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정부·용인·김포 등 무인운행 중심 경전철

의 기후환경 대응 능력은 여전히 ‘제로’ 상태”라며, 올해 6월 의정부경전철이 폭우·기온 변화 등으로 3시간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4조 원대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이라면 서도, “그런데도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력 과정에서 재원과 절차상 책

임을 지자체에 넘기고, 정작 도민 참여 구조와 의사결정권 확보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산선 지하화와 같은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강 의원은 평택항의 2025년 예산(445억 원)과 인력(61명)이 부산항(1조 7,337억 원, 255.5

명)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상태에서 동북아 3대 항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영평가 ‘다’등급에 머무르는 조직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불가하다”며 “조직 혁신과 투자 확대, 항만 비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은 “지적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

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철도·항만·공항은 도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현재처럼 ‘사후대응 중심’ ‘형식적 추진’ 방식으로 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기후위기, 글로벌 경쟁, 도민 안전의 관점에서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주민 생명 위협하는 덤프트럭 난폭운전...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편도 1차선 도로의 공포 트럭 위협운전 실태 고발

최근 대부도 전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매립사업으로 덤프트럭 통행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트럭 기사들의 난폭·위협운전이 도를 넘어서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나 고령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며 주행할 때 일부 덤프트럭이 뒤에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차간거리를 좁히며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대부도 도로의 특성상 대부분이 편도 1차선이라 앞차가 빠르게 갈 수 없는 구 조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빨리 가라’는 식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남동의 한 주민은 “대부도서관 앞에서부터 주유소까지 계속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와 공포감을 느꼈다. 차를 세워 비켜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다”고 당시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주민은 “교차로에서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고 ‘운전 푹



대부도에서 주민을 위협하며 달리는 덤프트럭과 동일한 트럭들의 모습으로 대부도에서 운행되는 트럭은 아니다.

김태창 기자

바로 하라’고 소리치며 지나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우리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당국은 “위협 운전을 목격하면

차량 번호를 확인해 즉시 신고해 달라”며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내리는 작업현장 소장에게 문제 운전자를 알릴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한 현장 퇴출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주민

들은 “사고가 난 뒤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상시 감시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보고회 열어



하남석 안산시 부시장(앞줄 오른쪽 일곱번째)이 지난 7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이 시장 “대부도 중심 수도권 대표 해양치유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

안산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대표 해양치유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안산시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을 논의하는 한편,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치유지구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연안과 해양 생태환경을

보유한 구봉도 지역을 해양치유지구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차별화된 수도권 일일 힐링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수도권 배후 2,500만 명의 풍부한 잠재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한 대부도는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통해 관광객 수요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해양수산부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안산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웰니스 산업 거점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해양치유산업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말부흥어촌계, 물량장 범람 문제 해결 논의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말부흥어촌계가 11월 7일 오후 4시, 물량장 내 어촌계 사무실에서 11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윤성용 기자

“함께 해결하자” 11월 정기모임에서 집중 논의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말부흥어촌계(계장 신준선)가 11월 7일 오후 4

시, 물량장 내 어촌계 사무실에서 11월 정기모임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신준선 어촌계장 주관으로 열렸으며, 임기만 통장을 비롯한 어촌계원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어촌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사리 때마다 물량장이 범람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어촌계원들은 “바닷물

이 차오를 때마다 장비와 자재가 손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물량장의 지반 보강, 배수시설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정기적인 환경정비와 청소활동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신준선 어촌계장은 “깨끗한 어항과 안전한 작업환경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어촌계 운영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뒤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진 친목의 자리에서는 계원 간의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한편 안산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사리 때 물량장이 범람하는 구역을 면밀히 조사해 국유지 또는 사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행낭곡항·흥성항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최종 선정

안산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안산시 행낭곡항과 흥성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국 300곳의 어촌을 대상으로 예산 총 3조 원을 투입하는 해양수산부의 핵심 어촌재생 정책이다.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취약한 생활·안전 인

형에서 두 개의 항구가 목록에 올랐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전문가 현장 컨설팅 및 지역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공모 신청 단계부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냈다.

도 내에서 유일하게 안산시 2곳 선정 4년간 총사업비 국·도비 100억 원 투입

프라와 생활 서비스를 개선,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속성을 높이는 취지다.

기존의 3개 유형(경제플랫폼·생활플랫폼·안전인프라)에서 2개 유형(경제도약형·어촌회복형)으로 재편해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전국 30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어촌회복형 유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국·도비 7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00억여 원이 투입된다. 시는 어촌뉴딜 및 어촌신활력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4륜오토바이 핑음과 매연 심각”

최적의 코스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길을 오가는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전기충전기를 이용한 2륜이거나 4륜 레저용 소형차량으로 연인과 가족나들이객이 주유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일부 몰지각한 업자와 레저 여행객이 중고 경유용 4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넣고 있다. 핑음과 함께 흠뻑이는 물론 시커먼 매연까지 내 뿜으며 줄지어 타는 4륜 오토바이가 주변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4륜오토바이를 전기충전기로 교체하도록 하고 경유용 매연을 내뿜는 4륜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4륜오토바이를 타고 메타세콰이어길을 달리는 것은 가을의 낭만을 즐기는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지사협 반찬 나눔 사업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지역 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행복담은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여름철 ‘열무김치 나눔’ 행사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위원들은 무생채, 장조림 등 밑반찬을 정성껏 조리, 준비된 반찬을 가정마다 방문해 전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일상을 살피고 마음을 나누며 온기를 전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 장상신도시 착공' 안산시, 서남권 핵심 거점으로 도약

1만4천 가구 규모,
2028년 준공 목표
자족형 스마트도시 추진

안산도시공사는 수도권 서남권의 핵심 주거 거점으로 조성될 3기 신도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조성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 김현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상욱 LH 부사장,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 지역 시·도의원 등 관계기관 내빈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시작을 함께했다.

장상신도시는 총 220만5천604.4㎡ 부지에 약 1만4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8년 택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완공 시 약 3만5천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2010년대 단원구 신길택지지구 이후 안산에서 10여년 만에 추진되는 신도시로, 인구 감소와 성장 정책을 겪는 안산시에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장상신도시는 공식 '신도시급' 기준 면적(330만㎡)에는 다소 미치지 않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안산도심 외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상록구 장상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착공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동·장하동·수암동·부곡동·양상동 일원을 안산의 미래 축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인 만큼 '신도시'라는 명칭이 어색하지 않다.

사업은 LH가 70%, GH가 20%, 안산도시공사가 10%의 지분으로 공동 추진하며, 안산시는 '안산다움'을 담은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직주락 도시' 목표...우수한 교통·임지·생활 인프라

장상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달리 자족기능을 갖춘 '직·주·락 도시'가 목표다. 주거 중심 개발을 넘어 일자리·여가·녹지가 조화된 자족형 스마트도시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우수한 광역교통성이다. 향후 개통하는 신안산선은 지구 중심을 통과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하며, 영동·수도권제1순환·서해안·평택파주고속도로와 인접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장상신도시 인프라는 '4개 생활권(수암·장상·장하·부곡)', '3개 보행축', '3개 특화거점'으로 대표된다.

도심을 관통하는 커뮤니티 가로가 각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산천 수변 및 녹지축을 따라 걷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3개 특화거점은 장상신도시의 핵심

이다. 장하역세권에는 교통·상업·업무 기능이 집중되고, 중앙에는 녹지공간인 센트럴라인파크, 안산천 일원에는 시민 휴식공간인 수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허승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장상신도시는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안산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안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 안산형 신도시의 모범사례를 함께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재안산 정읍향우회 11월 정기모임

11일 오후 신길동
유향오리 식당에서

재안산 정읍향우회(회장 조상운) 11월 정기모임이 11일 오후 6시30분, 단원구 신길로1길 74 소재 행복한 유향오리 식당에서 열렸다.

향우들은 지난달 고향방문의 날 행사에 다녀온 타인지 모두가 만나자마자 고향에 다녀온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행복한 11월 정기모임에 임했다.

항상 그렇듯이 이날 향우회원으로 입회한 신입회원에게는 조상운 회장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정기모임에는 모두 50여명의 향우들이 참석했다.

다음달 16일에는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연회장 3층에서 회

장 이취임식이 있다는 내용을 알리며 많은 향우들의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준 조상운 회장이 이임하고 현 수석부회장인 황호봉 부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다.

조상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도 많은 향우분들이 참석해줘 고맙고 지난 임기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한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장직을 정리하게 되었다"며 "다음 달이면 새로운 회장이 취임할텐데 더 많은 일, 더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읍향우회를 위해 더 참여하고 뒤에서 돕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재안산 정읍향우회 11월 정기모임이 11일 오후 6시30분, 단원구 신길로1길 74 소재 행복한 유향오리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황호봉(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수석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성포고, 레드카펫 밟으며 수능 출정!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한 응원식!



성포고등학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앞두고 11월 12일(수), 본교 운동장에서 '레드카펫 수능 출정 응원식'을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수험생 응원

성포고등학교(교장 김학범)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앞두고 11월 12일(수), 본교 운동장에서 '레드카펫 수능 출정 응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와 교직원,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입구에는 풍선아치와 레드카펫이 설치되어,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축하와 격려의 분위기로 가득

했다. 재학생들은 "선배님들, 수능 대박 나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힘찬 응원을 보냈고, 학부모회와 교직원도 함께 박수와 함성으로 수험생들의 자신감을 북돋웠다.

김학범 교장은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날이 바로 내일이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포고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서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2025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모두의 그림, 김홍도 축감畵(화)'

시민들 큰 호응 보여
누적관객 3천명 넘기고
연계 교육도 전 화자 마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에서 추진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김홍도미술관 상암미술공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5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모두의 그림, 김홍도 축감畵(화)〉가 당초 계획했던 누적 관람객 3,000명을 훌쩍 넘기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대상의 특수성 고려와 비교적 작은 규모 전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진행 중인 문화적 소외계층(장애인, 이주배경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총 9회차에서 11회차로 확대되었고, 모든 회차가 조기 접수 마감되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계획했던 12월 21일까지의 전시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하며, 교육 종료 후에는 활용했던 축감 교재를 선별하여 관내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가 주최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을 고려하면서도 장애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다.

램이다.

앞서, 김홍도미술관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상호 보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감 교구재를 개발했으며, 이를 이번 전시와 교육에 활용하여 단원 김홍도의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개발된 교구재는 △축감 교재 △축감 그림 △음성 해설(QR코드)로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축감 교재에는 김홍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장르별 대표작품 14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축감 그림은 김홍도미술관 소장품 10점을 재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풍속화 축감 그림 2점을 포함해 시각적 접근을 넘어 축감을 통해 감상하는 색다른 형태의 전시로 선보여 문화적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관람객까지 관심을 끌며, 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전시 및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김홍도미술관 031-481-0506으로 하면 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안산 매화 거점형 늘봄센터, 첫 성과발표회 성황리 개최

안산교육지원청, 공교육
속 예술·돌봄 모델 제시

안산교육지원청은 11월 12일(수) 오후, 안산시 상록구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안산 매화 거점형 늘봄센터가 주관하는 『늘봄 매화, 음악으로 피어나다』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돌봄 통합형 교육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매화초를 비롯한 9개 초등학교에서 총 68명의 학생들은 락밴드, 오케스트라, 방송댄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학기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자신 있게 선보였다. 락밴드의 강렬한 리듬으로 시작된 공연은 방송댄스팀의 역동적인 무대로 이어졌고, 마지막 오케스트라 합주에서는 현악과 관악, 타악이 어우러져 청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서로를



안산교육지원청은 11월 12일(수) 오후, 안산시 상록구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안산 매화 거점형 늘봄센터가 주관하는 '늘봄 매화, 음악으로 피어나다' 공연을 개최하였다.

정다운 기자

존중하며 함께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는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안산 매화 거점형 늘봄센터가 공교육 속 예술·돌봄의 모범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산시의회 의장, 관내 초등학교장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자리해 아이들의 무대를 함께 응원했다.

정다운 기자

반월동 새마을협의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개최



상록구 반월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0일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새마을회원과 유관단체 회원 등 30여 명은 전날 잘 절인 배추 300 포기에 갖은 재료로 버무린 양념을 정성으로 채워 김장김치 70박스를 만들었으며,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가가호호 방문해 전달했다.

특히 올해 기후변화로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배추 등 농작물을 구하기

가 힘들어 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를 알고 주변에서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보내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최영준 반월동 새마을회장은 “이번 행사가 소외계층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대섭 반월동장은 “매년 행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동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백운동, (주)휴림컴퍼니로부터 마스크 후원받아



단원구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주)휴림컴퍼니로부터 관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4,000장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및 취약계층 가구 등에 배부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희 대표이사는 “반월·시화공단 배후에 안산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온 기업인, 근로자들이 편안한 작업환경에 보탬이 되도록 노

력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백운동 주민으로 거주하며 호흡기 질환이 잦은 계절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작은 나눔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스크를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휴림컴퍼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사 jduju000@nate.com

본오1동, 따뜻한 사랑담은 겨울맞이 김장나눔



상록구 본오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오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관내 직능단체가 함께 참여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탬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체 회원들이 힘을 모아 정성껏 준비한 600박스를(

박스 5kg 상당) 독거어르신과 위기가구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참여형 지역복지 실천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박세광·최현규 공동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서로 돌보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본오2동 지사협,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봉사



상록구 본오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활공간의 청결 유지와 안전 확보가 시급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사협 위원들은 이날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방과 주방, 욕실 등 생활 공간을 청소하고 쓰레기와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했다. 또한 수납장 3종 세

트를 구매·설치해 정리정돈하기 쉽게 했고, 오래된 음식물로 가득한 냉장고를 정리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송영진 민간위원장은 “깨끗한 주거환경이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이 쾌적한 공간에서 새로운 기운을 얻어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사 jduju000@nate.com

선부3동, 2025 한마음 체육대회 성공적 마무리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제40회 시민의 날 기념 선부3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선부3동 체육회 주관으로 선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체육대회는 ‘열정·단결·화합·사랑’ 네 개 팀으로 나뉘어 고무신 멀리 날리기, 피구, 2인3각 달리기,

800M 계주 등 다양한 종목이 주민들의 열띤 참여와 응원 속에 진행됐다.

신유식 선부3동 체육회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선부3동 체육회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원곡동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나눔 이웃에 온정



단원구 원곡동 새마을회는 지난 11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저소득층 60여 가구에 김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서부새마을금고(이사장 김기명)의 김장재료 후원으로 원곡동 새마을회원 20여 명과 금고 직원들이 함께 김장김치를 담갔다.

전유현 새마을회장과 한희정 새마

을부녀회장은 “회원들의 정성과 후원기관의 도움으로 올해도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명 안산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주민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광덕약국, 안산시 월피동에 사랑의 쌀 100포 기탁



상록구 월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월피동 소재 광덕약국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1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덕약국(대표 김태희)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온 약국으로 월피동 광덕시장 인근에 위치하며, 2015년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을 후원해 누적 기부량이 15톤에 달한다.

김태희 광덕약국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

강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인만큼 그 일부를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기쁘답니다”고 전했다.

이재만 월피동장은 “생계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태희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광덕약국 김태희 대표님이 후원한 쌀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초지동, 제40회 시민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단원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와스타디움 서측 잔디광장에서 지역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40회 시민의 날 기념 ‘초지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랑운동회에서는 주민을 ‘비전팀’, ‘용기팀’, ‘열정팀’, ‘화합팀’ 4개 팀으로 나뉘 ▲에어보달리기 ▲신발 양궁 ▲연결합동놀이 ▲에펠탑 쌓기 ▲주민 노래자랑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

으며,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됐다.

오승섭 초지동 체육회장은 “체육대회를 성공적 개최의 자리를 빛내주신 초지동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함께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병호 초지동장은 “초지동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사 jduju000@nate.com

해양동 새마을부녀회, 김장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상록구 해양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안산서부새마을금고가 후원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독거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아침부터 새마을 회원들은 김장김치를 담그고, 지역 내 취약계층 45가구를 찾아가 김치를 전달하며 안부와 격려를 전했다.

해양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

의 김장나눔을 비롯해 장 나누기,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은채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훈기 해양동장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이 해양동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해양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법률사무소 화쟁
PARK & KIM LAW OFFICE

약력

現) 법률사무소 화쟁 대표변호사
現)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고문변호사
現) 경기도 운수연수원 외 다수법인체 법률고문변호사
現)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前) 경기도 경찰청 민간교통심사위원회 위원장
前)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前)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前)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
前) KT 고문변호사
前) 서울마주협회 고문변호사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 및 24회 동창회장
前)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지역부총재, 법제위원장, 감사
前)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및 법과대학 상임이사

박태훈 대표변호사 : 010-7929 8012

[주] 변호(담당) 전문 분야
◆ 형사 소송
▶ 성범죄(강제추행,유사강간등) 명예훼손(사자) 및 모욕
▶ 강력범죄(상해,폭행치상), 재산범죄(사기,횡령,보이스피싱 등)
▶ 학교폭력(정보망 허위사실유포 등) 및 중대재해법(기업 및 법인 포함)
▶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음주운전) 사건·해양포함
◆ 형사 소송
▶ 대여금반환청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신청
가압류가처분, 각종 기업소송 및 자문
▶ 중대 교통사고(손해사정)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물·인적)
※운전자보험(변호사 방어비용 선입) 및 면허행정소송 등
◆ 행정 소송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교섭변경신청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자문
▶ 공무원행정소송 등

삶의 가치를 더하는 공간



대표이사 정 승 수
(건축사 | 행정사)

다플러스원 건축사무소(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80 부원프라자 401호
TEL +82.31.482.2500 FAX +82.31.486.2500

Mobile +82.10.7344.2457
E-mail jss1188@naver.com
jss1188@dplusone.co.kr

대표이사 정 승 수
(건축사 | 행정사)

다플러스원 dplusone.com

[주요경력]
· 경기도 지방공무원 2급(지방이사관 명예퇴직)
· (전) 안산시 도사무택실장
· (전)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장
· (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장
· (전) 안산시 환경교통국장
· (전)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전) 상록구 · 단원구 도사무택과장
· (전) 안산시 선부2동 · 원곡 1동장 역임
· (전) 성남시 신도시기획관실 근무(’92~’96)
·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 (현)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 (현) 시흥시 건축심의위원
·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자문위원
·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축자문위원
· (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DAEBUDO JOURNAL

메추리섬 매매

(주)리치개발 · 황금토목
차준환 M: 010.5558.6665

토지 매매

(1)매매가 8억, 방2, 본인 주거 및 펜션가능한 물건 구함
(2)대부동동(영전마을) 대승단지 앞 맹지. 답. 350평.
평당 35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대부도핫플
오션뷰 브런치카페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T. 032-710-4340

대부도 바움펜션
황진 M. 010-7741-1150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2(대부남동), 202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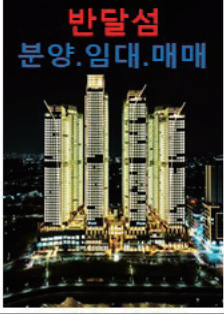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T. 032-885-52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T. 032-886-896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중 T. 0507.1331-134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대부 우체국
032.886.00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



군자농협 대부지점
032.886.3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9-13

영흥중·고 수험생 41명, 지역 응원 속 수능장 향해

연수고·연수여고·인천여고
3개 시험장으로 안전 출발

웅진군 영흥면(면장 장혁준)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 오전 6시, 영흥중·고등학교(교장 남일성) 수험생 41명이 영흥고등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연수고·연수여고·인천여고 등 3개 시험장으로 안전하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험생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단체 이동했으며, 경찰차의 에스코트가 함께 진행돼 이동 전 구간에서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가 제공되었다.

출발 현장에는 영흥면장 장혁준, 웅진농협 영흥지점장 이용석, 영흥수산업협동조합장 임병목, 영흥해양경찰파출소장 서창대, 영흥육경 파출소장이평주 등 지역 기관장이 참석해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관계자들은 “그동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바란다”며 “영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 오전 6시, 영흥중·고등학교 수험생 41명이 영흥고등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연수고·연수여고·인천여고 등 3개 시험장으로 안전하게 출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면 전체가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영흥중·고등학교는 ‘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교육비전 아래 중학생 120명, 고등학생 104명 등 총 22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영흥면 대표 교육기관으로, 매년 수능일에는 영흥면과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해 수험생들의 안전한 이동 및 현장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수험생 명단 확인, 이동 동선 점검, 차량 안전조치 등 사전 준

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영흥중·고등학교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해 주신 덕분에학생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모든 수험생들이 평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도서지역 물류비 절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상생의 동행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주)창대종합물류와 업무협약

백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명자)과 (주)창대종합물류(대표 유희금)는 지난 12일, 섬 지역의 물류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서지역의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복지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생의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사업 관련 물품 운송 시 물류비 지원, 복지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우선 운송, 지역 사회공헌 활동 및 공동사업 발굴 추진, 물류 및 복지 지원체계의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주)창대종합물류는 협약과 함께 백령도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전달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장명자 관장은 “물류 접근성이 제한된 도서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될 협약이다”라며, “창대종합물류의 따뜻한 나눔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희금 대표는 “기업의 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백령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백령종합사회복지관과 (주)창대종합물류는 지난 12일, 섬 지역의 물류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영흥면, 가을철 방파제 낚시객 쓰레기 수거 실시



웅진군 영흥면은 11일,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흥면 내5리마를 하늘고래 전망대부터 진두물량장까지 방파제 뒀은 쓰레기 및 가을철 낚시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

정다운 기사 jdujdu000@nate.com

웅진군 영흥면(면장 장혁준)은 11일,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흥면 내5리마를 하늘고래 전망대부터 진두물량장까지 방파제 뒀은 쓰레기 및 가을철 낚시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흥면 하늘고래 전망대는 영흥의 대표관광지이고, 진두물량장은 매일

200여명의 낚시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이날 지역주민 및 면사무소 직원 50여명이 모여 방파제 뒀쪽 그물, 밧줄 등 뒀은 폐어구들과 물량장 주차장 차량 뒀편이나 차량 사이에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비닐, 플라스틱, 낚시용품 등 방치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장혁준 영흥면장은“영흥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낚시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만큼 본인 쓰레기 뒀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우리지역을 찾는 낚시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사 jdujdu000@nate.com

캠코 인천지역본부, 덕적면 주민을 위한 재난 안전 구호 물품 지원금 기탁

웅진군 덕적면지역사회보장협의회(공동위원장 김남우, 김영희)는 지난 11일, 캠코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성준호)에서 덕적도 주민을 위한 재난안전 구호물품 지원금(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성준호 본부장은“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덕적면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남우 덕적면장은“덕적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해주신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웅진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개최



웅진군은 지난 10일, 웅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부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1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지난 10일, 웅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부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1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군수·구청장이 협력해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인천시·군·구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회의실에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부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1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정부부시장 등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의 웅진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10개 군·구가 함께 상생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웅진군을 포함한 인천지역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수·구청장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 「멧돼지 등 포획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파견

웅진군은 오는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야생 멧돼지와 유해야생조류 포획을 위해 각 면에 피해방지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여름 이후 지속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멧돼지 포획이 주된 목적이며, 수확철을 맞아 백령·대청 지역에서 주민 수확물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 등 유해야생조류 퇴치도 병행한다. 피해방지단은 주민피해 정도를 파악해 피해 정도가 심한 백령면과 대청면, 그리고 신규로 멧돼지가 출몰한 덕적면과 자월면을 위주로 활동하게 된다.

웅진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덕적면 본도, 자월면 승봉도, 대청면 소청도, 연평도 등에서 멧돼지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최대 5마리 내외가 서식하거나 섬 간 이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주민 신체 안전과 농산물 피해를 우려해 포획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집돼지의 조상으로 불리는 야생돼지로, 몸길이 최대 180cm, 어깨높이

0.45~1.0m, 체중 50~200kg 정도이다. 주로 활엽수림 등 깊은 산림에 서식하나 먹이가 부족하거나 추위가 심해지면 민가로 내려오며, 새끼는 보통 3~5월에 4~6마리를 낳고 평균 수명은 4~5년이다.

연평도와 소청도에서 발견된 개체는 북한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어, 포획된 개체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여부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웅진군 관계자는 “멧돼지는 위험하므로 발견 즉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자극하거나 혼자 포획·구제하려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멧돼지는 주로 야간에 서 새벽 사이에 활동하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발일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웅진군은 포획 상황을 분석해 포획틀 제작·설치 등 추가적인 포획장비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주민 안전과 농작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감사드린다”며, “기업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캠코의 이웃사랑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김진경 의장,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 참석

김 의장, 인도주의 정신 꽃피우도록 지원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려는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여러

운 이웃을 돕기 위한 300만 원의 특별회비도 전달했다.

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랑의 발자취이자 희망이었다”라며 “특히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온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은 1,420만 도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였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경기도 전역에 활짝 꽃피우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진경(사진 왼쪽)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전문가 칼럼

계획보다 실행, 자율보다 책임 —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으로 답해야 할 안산시 재정의 시험대



최종기
현대일보 국장대우

2026년 안산시의 재정 운영 방향은 ‘확장재정’과 ‘성과 중심 예산’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재정 자율권을 부여하면, 이제 지방정부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도시의 성패를 결정짓는 대가 열렸다. 재정의 자율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무게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안산시는 수도권 유일의 인구 감소 도시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조선·기계·자동차 부품 중심의 산업이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산업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도시의 재정은 단순히 예산 항목의 나열이 아니라 ‘도시 생존전략’의 설계도여야 한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가보다, 그 결과 시민이 어떤 변화를 느끼는가가 핵심이다.

지금의 안산은 대형 교통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 GTX-C노선, 신안산선, 그리고 철도 지하화 사업 등은 모두 ‘계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민들은 수년째 같은 구호를 들어왔지만, 출퇴근 시간의 불편과 교통난은 여전히 일상이다.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고, 구호보다 결과가 절실하다.

확장재정의 핵심은 ‘투입이 아닌

성과’에 있다.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그 돈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가 진짜 성과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행정이 진보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확장재정은 오히려 빛이 되고, 행정의 신뢰는 또 한 번 흔들릴 것이다.

따라서 안산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 틀을 답습하기보다 지역의 현실과 시민의 요구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상공인 지원, 청년의 도전을 돕는 창업 생태계 조성, 생활 SOC 확충,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인프라 강화 등이 바로 시민이 ‘바로 느끼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예산은 결국 행정의 철학을 증명하는 언어다. 숫자와 표로 이루어진 회계표이지만, 그 속에는 도시의 가치관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 예산이 시민의 언어로 말할 때, 즉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예산은 힘을 갖는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지금, 안산시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자율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책임이 위축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한다. 행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단기성과보다 값진 것은 시민의 신뢰다.

2026년 예산은 안산이 시민에게 보내는 ‘신뢰의 선언문’이 되어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철학으로,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도시의 재정은 도시의 얼굴이다. 예산이 시민을 외면하면 도시의 미래도 없다.2026년, 안산은 이제 예산으로 답해야 할 때다.

임태희 교육감 “2026학년도 수능 시험,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수능”

13일 북부청사 수능 종합상황실 및 도내 시험장 방문해 격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도내에서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모두 16만 3,593명이 응시한다.

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 시험을 위해 경찰관을 비롯해 3만 명 이상이 종사 요원으로 수고하고 계신다”면서 “특히 시험장교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수능 감독관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올해부터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 또는 시험실을 사전 분리 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오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상황실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해 학생 배치부터 점검, 보안 등을 더욱 강화한 노고를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수험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에게서 시선을 빼지 못

하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몽글하다면서 “오늘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함께 해온 가족 모두의 수능”이라며 수험생과 가족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집 주소만 입력 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과정서 위험 요소 알려준다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한다.

우선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하여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관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중앙 시조 백일장 - 10월 장원 수상작

“그림을 수선하다”



김정란

경기 수원 출생.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2017.3 수필 시대 신인문학상 ‘내 유년의 똥탄배 반월’.
2023.6 중앙시조백일장 차상 입상 ‘9호선 승강장에서’.
전 안산시청 보건직 공무원
38년 근무

집터를 바라본다
개밭이 휩쓸고 간
반듯한 담벼락은
배어먹은 시루떡
당굴은 꼬리가 되어
고양이를 휘감고

주인을 찾는다고
표찰을 달아줄까
감 달린 감나무에
나무집 엮어줄까
아니다 수선을 하자
골몰하는 붓으로

담장을 일으키고
꼬리는 풀어주고
감꽃은 무성하다
고양이는 깨어나
꽃잎도 별인 줄 알고
눈 속에 쓸어 담네

개밭을 쫓아가느라
흩어진 흔적들이
붓끝을 따라가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푸르른 길이 열리니
휘파람새가 온다

평범한 오피스텔 알고보니 미신고 숙박업소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1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 부천, 성남, 화성, 안양, 김포, 용인, 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

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개소 ▲주택 1개소 ▲생활형 숙박시설 1개소이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

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부천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 9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 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2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한국연구재단과 대학·기업 기술 교류의 장 커넥트데이 열어

‘대학 보유 기술과 관내 기업의 기술 수요 연결’
업무협약 산·학 협력 이끈다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연구재단과 ‘대학-지역산업 커넥트데이’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 19개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부산대 등)과 관내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산학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지난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관내 기업의 기술 수요를 연결, 관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날 열린 행사에서는 ▲안산시-한국연구재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연구재단 기술사업화(NRF-TCC) 플랫폼 기반 지역협력 소개 ▲안산시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 정책 소개 ▲인공지능(AI) 기술 특강 및 패널토론 등이 열렸다.

특히, 안산시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안산시 소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과 대학 간 기술상용화, 사업화 ▲안산시 소재 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1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학-지역산업 커넥트데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및 대학 보유 우수 기술의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산시와 한국연구재단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관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산호텔스퀘어에서 2일자 일정은

이어간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는 설명회와 대학-수요 기업 간 1대1 기술 상담 등이 진행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진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 상담과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산학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 개최 병역 이행 지원 등 정책 방향 논의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에서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제4차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4기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촉위원 1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평가와 주요 사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청년정책 주요사업의 추진 실적과 4분기 계획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초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안산시 병역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

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방향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안산시 산단 청년근로자 실태조사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 안산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지나 청년정책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와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청년정책관은 “청년정책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반영해, 청년들이 사회 주역으로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사 jdujdu000@nate.com



지난 12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에서 ‘2025년 제4차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다운 기사

市, 식용수 분야 국가 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서 A등급 달성



안산정수장(왼쪽 사진)·연성정수장(오른쪽 사진) 전경.



정다운 기사 jdujdu000@nate.com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에서 ‘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식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 총 171개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국가기반시설 보호대책, 중점 위험 관리, 재난 예방 및 대응대책 등 6개 항목 13개 평가지표를 가지고 재난관리 평가를 하고 있다.

일일 32만 9,000톤의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는 안산시(안산·연성정수장)

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대비해 비상시 재난대응수칙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상황별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재난관리 평가 우수등급 선정으로 안산시 수도물 상

록 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식수 분야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사 jdujdu000@nate.com

안산시건축사회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받아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건축사회(회장 이경희)로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건축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경희 회장은 “회원 모두가 지역사회

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안산시건축사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장애인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84명 모집

안산시는 이달 26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2026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84명으로, 전일제(1일 8시간, 주 5일) 56명과 시간제(1일 4시간, 주 5일) 28명으로 나뉘어 모집한다.

신청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나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확정되며, 최종 선발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주차구역, 계도요원 등으로 활동하며 행정 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

연말 맞아 지역화폐 충전·결제 합쳐 최대 15% 혜택 이벤트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에서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제4차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4기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촉위원 14명과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평가와 주요 사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청년정책 주요사업의 추진 실적과 4분기 계획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초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안산시 병역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

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청년활동협의체 운영 방향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안산시 산단 청년근로자 실태조사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등 안산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지나 청년정책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와 함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청년정책관은 “청년정책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반영해, 청년들이 사회 주역으로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사 jdujdu000@nate.com

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구직 장애인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 일자리 연계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관련 자격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섬『대부도 지명 이야기』 5회 역사는 흐르고, 대부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었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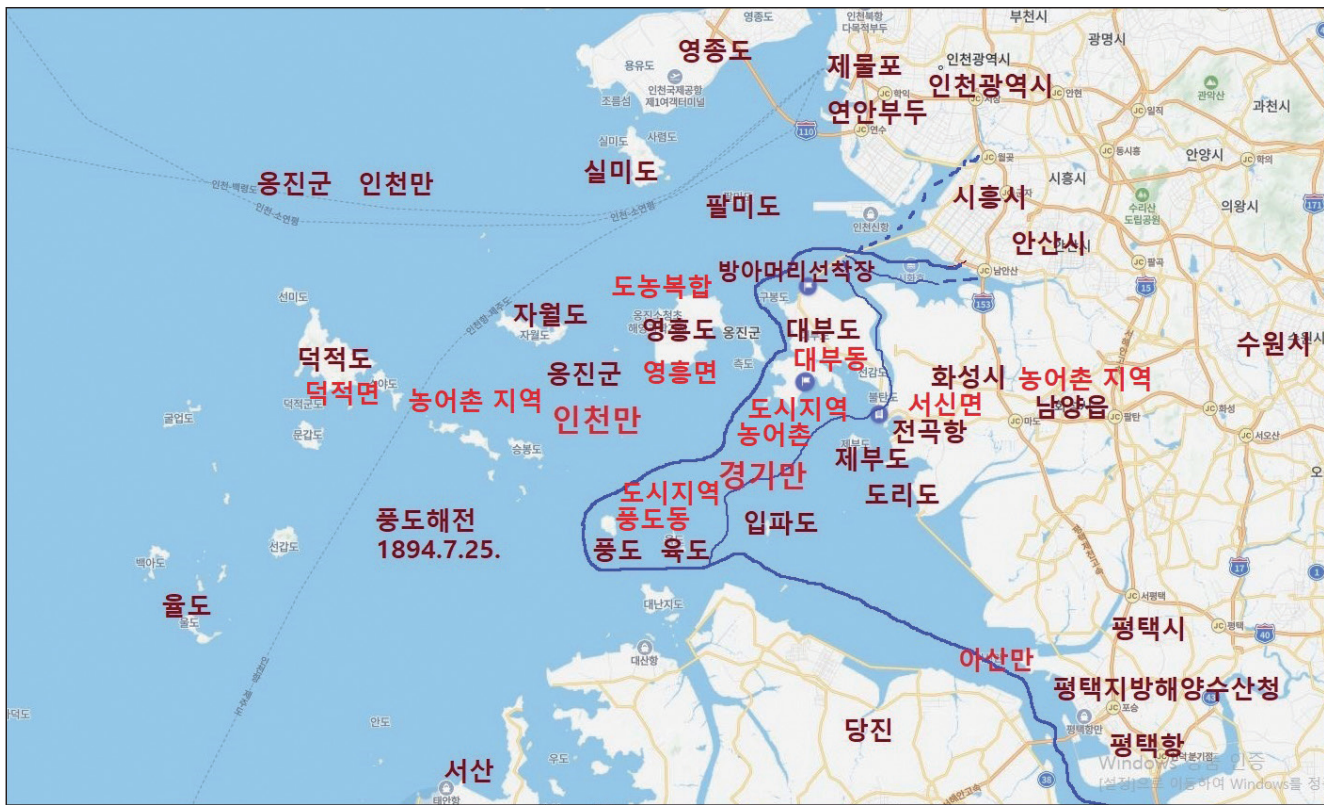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전호에서 계속〉 일제강점기 1914년 부·군·면 행정구역 개편 후,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도 잠시, 미소 강대국에 의해 38선이 그어지면서 웅진반도의 대부분과 장연군의 백령도, 벽성군의 대연평도, 웅진군의 기린도 등이 경기도 웅진군과 부천군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휴전으로 웅진반도가 북한령이 되면서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인근 섬만 부천군에 남게 되었다. 황해도 웅진군과 경기도 부천군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때 부천군청은 1940년대 개항장 지역인 인천 옥정(현재 답동)에 있었고, 6.25 당시 웅진군청을 부천군청 내에 설치하였다. 1962년 군청을 소사읍으로 이전하여 도서 지역인 대부도 주민들은 군청을 가려면 인천항에서 다시 소사까지 가야했으므로 어려움이 많았다.

1973년 소사읍이 현재의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1914년에 급조된 부천군은 없어진다. 오갈 데 없게 된 대부면,



5회 〈인천만의 농어촌지역과 경기만의 도시지역 안산시 대부동, 풍도동 지도〉

영종면, 덕적면 등의 도서 지역은 전 부 웅진군에 편입되어 백령도와 연평도 주변의 두 개 면만 남아있던 웅진군이 커진다.

그 후 1989년 웅진군의 영종과 용유면이 인천에 편입된다. 이어서 1995년 행정과 생활권이 인천과 얹혀있는 웅진, 강화, 김포 검단도 주민투표로 인천에 편입되면서 웅진군의 대부면만 경기도에 남는다. 인천직할시는 농어촌 군·면 지역이 편입되면서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인천 앞 바다는 경기만에서 인천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1994년 12월 26일 웅진군 섬 친구

를 잃고 경기도에 남겨진 대부면이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 중 어디로 갈지 주민투표를 한다.

시흥시와 안산시 선거운동원에 의하면 처음에는 시흥시 편입 여론이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안산시가 선거 하루 전 통장과 부녀회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쳤고, 선거 당일 통장들이 마을을 돌면서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안산에 찍을 것’을 적극 독려하여 3표차로 과반을 넘겼다 한다. 만약 안산이 4표만 적게 나왔어도 과반 미달로 재투표를 할 수 있었다. 투표 결과는 안산 50%, 시흥 47%, 화성 3% 정도였다. 이를 근거로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와 안산시 조례 제572호에 의거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웅진군 대부면 전체가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이때 경기도에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아무 연관 없는 안산시를 끼워 넣은 것이 잘못이었었고, 안산시도 도농복합시로 바꾸어 농어촌 대부면이 유지되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했다. 즉, 1994년 말 경기도 대부면 행정구역 재편과 의견 수렴 주민투표는 잘못된 사례로 평가된다. 그 이유

는 첫째, 대부도와 인천과의 지리적 인 면을 고려했다면 시흥시로 가야했다. 다음은 역사적인 면과 사강시장을 많이 이용했던 점, 농어촌의 경제적 공통점, 인근 섬과의 유대관계나 어업권 문제가 얽혀있는 풍도와 육도를 고려하였다면 화성군으로 가야 했다. 지역 대표들의 순간적인 오판(誤判)으로 매우 이질적(異質的)인 안산시에 편입된 것은 많은 문제 발생을 예견하고 있었다.

용역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주민투표에만 의존한 정책으로 대부도와 풍도 인근 섬 주민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고 있다. 대부도 유지들의 증언에 의하면 첫 번째 이유로 대부면에 경기도 땅 231만㎡(약 70만평)가 있기 때문에 대부도만 잔류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부도와 풍도를 인천에 넘기면 평택항 항로가 인천시장 관할이 되기 때문이다. 해양도시 안산시와 경기도 바다의 핵심인 대부도와 풍도의 주인공은 주민이다. 이곳이 면지역이 되어 발전하도록 도지사, 시장, 시·도 및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데스크 칼럼

회칙은 공동체의 헌법이다 — 대부파크골프클럽이 직면한 과제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파크골프클럽이 최근 임원회의 자격논란과 선거 절차 문제로 큰 혼선에 놓여 있다. 지금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니라, ‘존재하는 회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절차가 정당했는가’라는 공동체 운영의 근본 문제다.

우선 회칙에 규정된 정기총회 일정은 명확하다. 제3장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25년도 정기총회는 12월 11일이 정확한 날짜다. 회칙이 미흡하더라도 명문화된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는 순간 공동체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원회의 구성과 자격 논란이다. 회칙에는 회장, 부회장, 네 개 클럽장, 사무국장, 재무, 감사 두 명, 고문·자문위원 등이 임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라는 조직은 회칙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최근 임원회의에 자격 없는 사람이 참석했고, 정작 감사는 불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그 임원회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회의 소집자에게는 업무방해 책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잘못된 절차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면 그 결정은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강행시 민·형사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다.

특히 선거 절차에 대한 오해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회장, 네 개 클럽장, 감사 등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전체 회원이 네 개 클럽장을 모두 투표해 뽑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각 클럽장은 해당 클럽의 회원이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자 법률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를 무시하면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회원의 클럽 가입 방식 역시 회칙에 명시 없기에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회원 스스로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클럽별로 확정된 회원들이 총회장에서 클럽장을 선출하면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모든 논란은 결국 하나의 사실로 귀결된다. 회칙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회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회칙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는 행위는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체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정비와 개선이다. 이번 총회는 현 회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를 시행하되, 다음 선거부터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회칙 개정 TF팀을 구성해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명확하고 공정한 회칙이 만들어질 때, 대부도파크골프클럽은 지역의 모범 클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대부도 수제포도와인 · 포도즙

우리랑

자연으로 빛은 건강한 한 잔

Since 2000
Wurirang
우리랑

Since 2000
Wurirang
우리랑

추억의 자연상회와 함께 하는 특별한 순간



자연 발효로 빛은 15년 의 정성

안산의 자랑 대부도수제포도와인

우리랑

